



미국의 육류소비 , 쇠고기에서 닭고기로

미농무성의 전망에 의하면 1987년 닭고기를 중심으로 한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라기 등의 가금육의 소비량은 미국인 1인당 78.2파운드로 늘어나고, 쇠고기는 75.7파운드로 감소될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30여년전 돼지고기 소비가 주류를 이룬후, 쇠고기 소비로 바뀌고, 이제 또 닭고기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닭고기는 포화지방 함량이 100g당 3.7g인데 비하여 쇠고기는 20.7g이나 되므로 닭고기가 보다 건강에 좋음을 말해준다. 또 닭고기는 소비자의 구미에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요리도 개발되었고,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더우기 닭고기는 다른 고기에 비하여 싸다. 그 이유는 사료효율이 높고, 닭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우량종의 육성이 쉬우며, 닭은 일광없이도 간단한 약제로 비타민D를 보

충할 수 있고, 좁은 땅에도 사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계관련산업인 사료공업, 수송업, 가공업 등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료효율을 보면, 닭고기 1파운드 생산에 2파운드 이하의 사료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돼지고기는 3파운드, 쇠고기는 6~7파운드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이점들로 인하여 찬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 브로일러 1파운드에 59.5센트였는데 1986년에도 83.5센트에 불과했다. 반면 쇠고기는 같은 기간중 76.4센트에서 231센트로 상승되었다.

또 닭고기는 과거 대략 3년주기의 가격등락이 있었으나 1982년 이후 이 주기가 없어지게 되었고, 양계관련업자들의 수익도 지속적으로 상당히 높다.

닭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1979년에 개발된 닭고기 맥너겟

(McNugget) 이란 요리의 영향이 크다. 이것은 1982년에 미국 전역에 크게 유행했던 것이다.

(농업경제정보 9월)

세계 계산물생산 지속증가 아시아가 성장주도할 듯

1990년도 세계 계육생산은 10년전인 1979~1981년 3개년 평균보다 54% 증가한 4천만톤에 달할 것이며 1990년도 세계 계란생산은 10년전보다 32% 증가한 3천 5백만톤에 이를 것이라 한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세계 인구는 18% 증가한 53억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1인당 계산물소비가 증가될 것임을 나타낸다.

1985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같은 해 계란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이나 높은 증가율로 인해 1990년에 가서는 닭고기 생산이 계란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까지 10년간 닭고기 생산증가를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의 증가율이 88%로 가

세계 양계업은 지금...

- 편 집 부 -

장 높으나 물량증가면에서는 북미 중미와 아시아가 비슷하다.

또한 아시아는 계란생산증가에 있어서도 증가율, 물량 공히 타 대륙을 앞설 것으로 예상돼 1990년 에 가서는 유럽과 생산량이 비슷해 질 것이다.(P.I)

호주의 채란양계

호주를 비롯한 뉴질랜드 뉴기니아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들의 계란 물생산량은 증가하는데 비해 달걀 소비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

이들 국가중 양계산업이 제일 발전한 곳은 호주인데 값싼 곡물가격 때문에 더욱 발전이 예상된다. 90년 대의 닭고기 생산량을 45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계란의 경우에는 1인당 소비량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90년 대에는 약간 회복될 전망을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80~70년대 나 타났던 수요감소가 다시 나타나리라고 긴장을 하고 있다. (P. I 9)

소련의 달걀생산 급증

최근 소련의 달걀생산량은 770억 개가 생산되어 83년에 비해 1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업용 계란 수요를 감안하면 이 양은 부족한 상태이다.

소련은 90년대에 달걀 820억개, 닭고기 350만톤을 생산할 계획에 있다. 80~85년 사이에 1인당 달걀 소비량은 234개에서 260개로 증가 하였다.(P.I 9)

유고슬라비아 양계산업

정부재정 때문에 20여년간 양계 산업은 소규모로 발전하였다. 유고의 달걀생산량은 80년에 약44억개 85년에 47억개 였으며 90년대에는 48억개가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고는 달걀 수출국으로 연간 8억~9억원 정도로 생산되는 모든 달걀이 갈색란이다. 유고의 1인당 계란소비량은 220개로 나타났다. 80년의 경우 230개에 비해 많은 소비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1인당 계란소비량을 220개, 닭고기소비량을 9kg에 초점을 맞추어 달걀 95억개, 닭고기 35만톤(생체무게)을 생산할 목표로 양계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P.I)

양계산물 자급국인 포르투갈

달걀과 닭고기를 완전 자급자족 하고 있는 포르투갈은 양계산물 소비 또한 대단하다.

이나라의 달걀 생산량은 14억개로 나타나는데 이중 2억4천만개는 집근처에 뇌먹이는 형태로 사육한 닭에서 생산된다. 1인당 계란소비량은 140개인데 실제 많은 관광객을 제외한다면 이보다는 약간 적은 숫자로 보아야 한다.

가금육의 총생산량은 16만톤인데 닭고기가 8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칠면조 고기이다. (P.I) 양계

